



##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세대 갈등에 대한 온라인 댓글 여론의 반응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하나** 이화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Online Public Opinion on the Conflict Between Young and Old Generations through Topic Modeli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dia's Role in Generational Solidarity\*

**Soontae An**(ORCID:<https://orcid.org/0000-0002-6016-8759>)\*\*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Hannah Lee**(ORCID:<https://orcid.org/0000-0003-1667-0108>\*\*\*)

(Research Professor,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Soondool Chung**(ORCID:<https://orcid.org/0000-0002-5099-1880>\*\*\*\*)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young (20s~30s) and older (50s~60s) generations, which recently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news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nline public's perspective on this conflict by analyzing the comments found on news articles. The collected comment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opics. The first topic was opinions on the younger generation, referred to as the MZ generation, which was perceived as an overly individual, selfish generation that tries only to assert their rights and complains without doing their jobs properly. The second topic was opinions on the older generation, exemplified by "bosses who unilaterally impose their thoughts," and "bosses who only nag and unnecessarily emphasize gatherings." The third topic, among the more noteworthy results confirmed by this study, was that the media is promoting generational conflict. The fourth topic was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old generations is not a new one and has existed in our society since ancient times, despite the passage of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C2A03092919)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3092919))

\*\* soontae@ewha.ac.kr

\*\*\* hannah21@ewha.ac.kr, corresponding author

\*\*\*\* sdchung@ewha.ac.kr

time. Finally, the fifth topic was the opinion that only some members of both generations experience or cause generational conflict, exemplified by “not all members of the older generation are Kkondae,” and “there are young Kkondaes even among the MZ generation.” To reduce generational conflict,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way to share and communicate the sociocultural values and lifestyles experienced by each gene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generational conflict highlighted by the news media can be viewed as a problem occurring in some individuals or in the age difference related to the number of years of life. News media have the power to create social discourse and issue specific topics. The name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fic generations mentioned in the news are highly likely to serve as a frame of reference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m.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excessive generalization of a specific generation can aggravate generational conflict by fixing stereotyped images and attitudes toward that gene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erms of suggest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news comments. As shown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news audiences actively and honestly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comments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articl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of the media in achieving generational solidarity.

**Keywords:** Generation Conflict, Generation Gap, News Comments, Online Opinion, Topic Modeling

# 1. 서론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세대 갈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정해식 외, 2018). 관련 연구들은 세대 갈등이 발생한 주된 이유를 ‘세대 간 자원 분배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예: 박길성, 2011; 원영희·한정란, 2019; 이수연·최인희·김인순, 2010). ‘65세 이상 퇴직 연령층이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했지만, 경제활동 인구의 상대적인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누렸던 것과 다른 불평등·불공정한 사회, 신·구세대의 가치관 충돌 및 정치적 견해차까지 더해져 특정 세대를 향한 혐오 표현까지 생겨날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남궁은하, 2021; 신진욱·조은혜, 2020; 최유석·오유진·문유진, 2015). 2026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소통 방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갈등 이슈를 전달하는 뉴스 미디어를 주목하고,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세대 연대를 위한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갈등이 세대 간 접촉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미디어는 나와 다른 세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세대 갈등은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 내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정해식과 동료들(2018)은 한국 사회 내 갈등에 관한 언론 보도 경향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세대 갈등에 관한 뉴스 보도가 201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10년대 언론에 자주 등장한 세대 갈등 키워드는 ‘일자리’,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꼰대적 발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식 외, 2018).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고용 및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 충돌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세대를 ‘MZ세대’로, 기성세대를 ‘꼰대’라 칭하며 세대 간 대립을 보도하는 뉴스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세대 명칭과 함께 등장하는 갈등 담론은 ‘세대 간 불화를 조장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박재홍, 2009)’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세대 명칭에 내재한 제한된 이미지가 특정 세대에 관한 고정관념을 만들고, 나와 다른 세대를 ‘그들’로서 타자화해버리기 때문이다(김선기, 2014; 박재홍, 2009). 선행연구들은 뉴스 미디어가 특정 세대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

내면서 세대 갈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왔다(방정배·최세경, 2003; 방희경·유수미, 2015). 사회적 갈등은 주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관점만을 부각 혹은 배제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방정배·최세경, 2003, p.224). 여기에 그 자체로 집단을 범주화하는 세대 명칭까지 더해진다면, 세대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김선기, 2014). 이러한 실정에 비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세대 통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더욱이 공중이 뉴스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세대 갈등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지금까지 미디어 연구에서는 준-사회적 접촉 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혹은 미디어의 배양 이론(cultivation theory)을 근거로, 공중은 뉴스 미디어에서 전달된 세대 갈등 구조와 이미지 그대로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주로 뉴스 프레임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 위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예: 김선기, 2016; 방정배·최세경, 2003; 방희경·유수미, 2015; 신진욱·조은혜, 2020). 뉴스 미디어가 세대 갈등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해당 문제를 대하는 공중의 시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김미리·이선희·정순돌, 2020),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갈등을 겪는 주체인 공중의 상세한 의견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조사 연구들은 주로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등 단편적 파악에 그치고 있어,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통찰을 얻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갈등 이슈를 전달하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와 해당 뉴스를 접한 여론의 반응으로서 댓글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세대 갈등 담론에 대한 공중의 반응을 댓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댓글은 “특정 이슈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직접 기록되는 공간(p.256)”으로, 뉴스 기사에서 다뤄진 특정 이슈에 관한 여론의 태도와 의견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양혜승, 2009). 비록 댓글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은 일부일지라도,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고자 댓글을 읽는 경우가 많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자신의 의견을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김혜미·이준용, 2011; 이은주·장윤재,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은 세대 갈등 이슈를 대하는 뉴스 이용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세대 갈등의 중심에 있는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명칭에 초점을 두고, 관련 뉴스를 접한 공중이 남긴 댓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을 빚

고 있는 주체를 향한 댓글의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세대 명칭별 특성과 이들의 갈등 양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세대 공감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미가 있다.

## 2. 문헌검토

### 1)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살펴본 세대 갈등 인식과 미디어

세대 갈등은 세대 구분으로 생겨난 차이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비슷한 연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 세대만의 고유한 문화·정서·생활양식을 형성한다(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즉, 출생한 시기에 따라 경험한 사회적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와 서로를 향한 편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박재홍, 2010; 정순돌 외, 2016). 이러한 관점과 인식의 차이는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 간 교류의 기회가 점차 적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이금룡, 2004).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사회 속에 사는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self)에 대한 정체성을 지각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때 개인이 태어난 출생 연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범주로서, 개인 스스로와 자신이 속한 집단(in-group)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작용한다(North & Fiske, 2012). 결과적으로, 내집단 구성원과의 유사성 인식은 나와 다른 정체성을 지닌 외집단 구성원과의 차이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 기준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대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된다(Turner, 1985).

위와 같이, 세대 집단 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정보가 필요하다. 앨포트(Allport, 1954) 및 페티그루(Pettigrew, 1998)는 '집단 간 만남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안했다. 외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내가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고, 확장된 이해의 폭은 기존의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재평가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요지다(Allport, 1954; Pettigrew, 1998). 관련하여, 황미영(2019)은 노인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차별주의가 낮다는 점을 밝혔다. 비슷하게, 이지연과 한경혜(2017)는 한국 성인남녀 1,535명을 표본으로 한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과의 일상 접촉률이 높고 친밀한 교류를 경험한 사람은 접촉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 비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욱이

외집단을 향한 태도 개선의 효과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mediated intergroup contact)을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예: 안순태·강한나, 2018; 황미영, 2019; Ortiz & Harwood, 2007).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나와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통해 비치는 타 세대에 관한 이미지가 부정적일 경우, 간접 경험을 통해 오히려 기존의 고정관념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안순태·이선영·정순돌, 2017). 관련하여 김미리와 동료들(2020)은 미디어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적 모습을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세대 갈등을 높게 인식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디어 이용량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순태와 강한나(2018)는 텔레비전 광고·드라마·신문기사 등 전통 미디어에 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부정적인 노인 관련 콘텐츠의 영향을 조사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미디어 접촉이 부정적일수록 노인 낙인이 증가했으며, 이는 노인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적 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안순태·강한나, 2018). 즉, 뉴스 미디어의 프레이밍 기능은 세대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편파성과 정파성으로 인해 종종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임, 2017).

더욱이 미디어는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중심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각 세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특정 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권력 혹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Fairclough, 1995). 마찬가지로, 특정 세대 혹은 세대 갈등에 관한 담론도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게 되며, 특정 세대의 정체성은 대상 그 자체로부터 초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에 따라 규정된다(방희경·유수미, 2015). 게다가 지금까지의 세대 담론은 줄곧 “나 이든 세대는 보수적이고 젊은 세대는 진보적으로 묘사(p. 12)”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박재홍, 2009). ‘청년’이라는 명칭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주체(p. 6)”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기훈, 2014; 김선기,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년세대, 기성세대 등 세대를 구분하는 집단 범주 자체가 세대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규정하고, 이러한 명칭 속에 각 세대와 연령층을 대하는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다.

## 2) 세대 명칭과 세대 갈등

시대가 바뀔 때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박재홍(2009)은 세대 명칭이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 특성’,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

화적·행태적 특성' 등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88만 원 세대'가 정치·경제적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 명칭이라면, '신세대', 'X세대', 'N세대' 등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행동적 특성이 반영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대 명칭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박재홍(2009)은 "세대 이름을 생산하는 3대 주체가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기획사, 정치권"이라고 지적했으며, "대중매체는 시대 풍속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기업과 광고기획사는 마케팅 대상의 차별화를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유권자 분할 포섭을 위해 세대 이름을 생산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p. 14)"라고 주장했다.

세대 명칭 속에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과 동시에, 특정 세대를 정의하는 단편적인 지식 구조가 담겨 있다. 이는 특정 세대를 이해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기능하며, 뉴스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다. 관련하여, 방희경과 유수미(2015)는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청년세대에 관해 어떠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세대 명칭에 따라 청년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에서 '실크세대', 'G세대'로 호명된 청년들은 자기 발전을 위한 능력을 갖춘 이들로 묘사되며, 개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반면, '88만 원 세대'와 '삼포 세대'로 호명된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치솟은 집값 등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한경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묘사되었다. 즉, 같은 20·30세대의 청년을 칭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문제를 해석하고, 세대 연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 전혀 다른 관점으로 관여할 수 있다.

세대(generation)라는 개념적 특성상, 세대 담론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2002년 미디어를 통해 비친 청년세대는 변화의 주체세력이자 희망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기성세대와 대립하는 청년세대의 모습이 강조되었다(권정민, 2007; 박재홍, 2009에서 재인용). 2010년 이후 뉴스 미디어의 청년세대 담론을 분석한 김선기(2016)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 바뀌어야 할 집단 범주로서 연령주의적(ageism)인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p. 55)"고 지적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세대 담론의 영향 때문인지, 2010년 이후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국민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해식 외, 2018). 하지만 사실 모든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88만 원 세대' 등의 명칭 속에 내포된 것처럼 모두의 미래가 암울한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박재홍(2009)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혹은 유행과 같이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세대 현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세대 간 편 가르기만 심화시킬 뿐(p. 21-22)”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전파되는 세대 명칭의 사용이 세대 차이와 갈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통해 설명했듯이, 개인은 내집단에 대한 편향적 태도(in-group bias)를 보이기 때문에, 세대 명칭을 통한 집단 구분은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North & Fiske, 2012). 게다가 세대 명칭에 의한 언어적 범주화(labeling)는 고정관념을 넘어 그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혐오 표현으로 변질될 위험성까지 지닌다(강병창, 2019). 이렇게 되면, 세대 명칭의 기능은 특정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코호트(cohort) 특성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게 부여된 언어적 표식(labeling)’으로 정의되는 낙인(stigma)의 개념(Link & Phelan, 2001)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MZ세대’는 요즘의 20·30세대를 일컫는 명칭이다. 아직 MZ세대에 관한 미디어 담론분석이 시도된 바는 없지만, 대체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하고 주체성이 강한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주용완, 2021). MZ세대와 비슷하게,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로 불리던 386세대는 이제 중년에 접어든 기성세대가 되었다. 386세대가 지금의 MZ세대 나이였던 1990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주요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신진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386세대는 청년세대와 충돌하는 기성세대이자 무능한 꼰대 집단이라는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층 나아가,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요즘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에 관해 공중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댓글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 3) 온라인 뉴스 댓글이 갖는 사회적 의미

본 연구는 세대 갈등 이슈에 관한 공중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주목한다. 댓글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 부가된 대인 소통적 요소로서, 이용자 의견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김혜미·이준웅, 2011; 이은주·장윤재, 2009).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했던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댓글 기능이 추가된 온라인 환경에서는 뉴스를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댓글은 뉴스 이용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겨난 가장 큰 변화이자, 뉴스 이용자들을 적극적인 이슈 참여자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김혜미·이준웅, 2011).

뉴스 댓글은 온라인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록 악성 댓글의 문



제와 실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댓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가 댓글이 여론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한다(예: 김혜미·이준웅, 2011; 이미나, 2010; 이은주·장윤재, 2009; 정일권·김영석, 2006). 관련하여, 최동성과 동료들(2008)은 2007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아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을 다룬 뉴스 댓글을 토대로 여론 형성 과정과 특성에 관해 연구했다. 이들은 댓글의 의견이 다수와 소수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댓글이 의견 표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라는 댓글 특성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최동성 외, 2008). 이은주와 장윤재(2009)는 댓글 읽기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피험자들이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 여론까지 추론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했다. 게다가 온라인 뉴스 이용자는 기사와 댓글도 함께 읽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댓글은 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슈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지적 틀을 제공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김혜미·이준웅, 2011).

소수가 작성한 댓글이 댓글 읽기를 통해 다수의 의견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댓글 읽기의 영향력은 인지 부조화 이론 및 침묵의 나선 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 사는 개인은 소속감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 다수와 일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Hoshino-Browne et al., 2005).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집단으로부터 배제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침묵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일치로 인한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An & Lee, 2019). 이와 관련해, 정일권과 김영석(2006)은 개인은 댓글을 읽음으로써 다수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고, 댓글에 분포된 의견이 강한 쪽으로 본인의 의견을 맞추려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강재원과 김선자(2012)도 댓글의 견해가 이슈에 대한 의견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위 연구에 따르면, 댓글과 개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의견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댓글과 개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댓글은 기존 의견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강재원·김선자, 2012).

위와 같은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댓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대 갈등 문제를 접한 공중의 인식과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은 기존의 담론분석이나 내용분석과 같이 질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없지만, 전체 댓글 중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연결성을 토대로 해당 댓글들에서 나타내는 상위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의 댓글보다 다수의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정일권·김영석, 2006), 상위 빈도수라는 양적 결과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은 기존 질적 분석보다 더욱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특정 이슈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댓글 분석은 불특정 다수의 솔직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예: 신경아·최윤희, 2020; 안순태·임유진·이하나, 2020; 이윤주·김설아·도영성, 2020). 하지만 뉴스 미디어에서 세대 또는 세대 갈등에 대한 어떠한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댓글 분석을 통해 해당 담론을 접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토대로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여, 세대 갈등을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들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세대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세대를 칭하는 명칭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세대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글 속 세대를 칭하는 단어에 내포된 이미지나 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의 주제 분류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세대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글 속 MZ세대 혹은 기성세대라는 명칭이 만들어내는 세대 담론의 내용적 특성은 어떠한가?

### 3.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댓글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 뉴스 기사를 수집했다. 두 세대 간 갈등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빚어진다는 선행연구(정해식 외, 2018)에 따라, 기사 주제를 고용노동 및 조직문화로 한정했다. 기사 수집을 위해서는 뉴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다.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한 검색어로는 'MZ세대'와 '기성세대'를 사용했으며, 두 개의 검색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기사들만을 추출했다('MZ세대+기성세대' 사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해

당 기간 내 보도된 지면 기사만을 수집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기사 유형으로 ‘전체’, ‘포토’, ‘동영상’, ‘지면 기사’, ‘보도자료’, ‘자동생성기사’ 등 총 6가지 카테고리를 제공하는데, 댓글을 수집하기 위해 뉴스를 검색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지면 기사’로 기사 유형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9년도와 달리, MZ세대를 키워드로 기사 검색 시 세대 갈등을 다룬 기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체로 “MZ세대 소비트렌드 ‘FOR ME’에 쫓겼다”, “온라인 줍다 박차고 나온 MZ 패션...커비낫, 오프라인 영토 확장” 등 마케팅 관련 기사 혹은 “젊은 층수 구광모의 실용주의...LG, 33년 만에 강당 시무식 없앤다”와 같은 보도자료 성격의 기사들이었다. 또한, “그들만의 시무식 퇴출...MZ 세대와 소통한다” 등 세대 소통 방안을 다룬 기사들에는 댓글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연구 종료 시점인 2021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언론사는 일간지 위주로,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동아일보·매일일보 등 네이버를 통해 볼 수 있는 15개 신문을 모두 선택했다. 본 연구는 세대 갈등 이슈를 다룬 뉴스에 달린 댓글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다루거나 주식·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MZ세대에 관한 기사들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수집된 뉴스 기사 중 댓글이 달린 기사의 수는 총 19건으로 적었지만, 총 수집된 댓글의 수는 3,54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3건(댓글 수: 43건), 동아일보 2건(댓글 수: 48건), 세계일보 5건(댓글 수: 539건), 조선일보 3건(댓글 수: 1841건), 중앙일보 6건(댓글 수: 803건), 한국일보 1건(댓글 수: 44건)의 뉴스 기사가 수집되었다. 검색된 기사와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Python을 이용해 웹 크롤링(Web Crawling)하였다. Python에는 웹 크롤링이 가능한 다양한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본 연구는 Selenium을 이용하였다.

## 2) 분석방법

### (1)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댓글은 작성자가 입력한 자연어 형태 그대로 텍스트 문서로 저장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 이에 자연어를 인공어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의 Komoran3 패키지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 형태소 분석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당 패키지는 사용자 사전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전처리 수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사용자 사전이란, 어휘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연구자 필요로 임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사전을 의미한다(신준철·옥철영, 2012). 예를 들어, ‘MZ세대’, ‘꼰대’ 등과 같

은 단어들은 신조어이기 때문에 기본 어휘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 사전 기능을 이용해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어가 분석 시 출력되지 않아, 중요한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웹 크롤러를 통해 수집된 3,547건의 댓글들은 1차 형태소 분석을 통해 인공어로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장 내용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숫자,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이 모두 제거되었다. 그러나 1차 전처리 과정만으로는 텍스트 분석을 하는 데 불안정한 측면이 많다. 텍스트 분석의 핵심은 주요 빈출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사용자마다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주요 단어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즘에', '요새애들'은 '요즘애들'로, '기사잘못', '기자이상'은 '기사문제' 등과 같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였으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있', '반', '깁', '없' 등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제거했다.

정제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 단어별 빈도수와 비율을 확인했다. 이 빈도수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통해 Term Frequency (TF) -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 값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값을 산출했다. TF-IDF는 한 사람의 답변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Term Frequency)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수집된 전체 답변 중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계산한 값(Document Frequency)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연결 중심성은 하나의 단어에 몇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값 및 연결 중심성 등을 계산할 때 개별 문장이 아닌 하나의 댓글을 분석 수준으로 두었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댓글이던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댓글이던지 관계없이 한 댓글에 포함된 모든 문장은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기에, 댓글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2)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문서 내의 단어 빈도수를 토대로 유사 문서의 군집을 파악함으로써 대량의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찾는 통계적 알고리즘이다(Weng, Lim & Jiang, 2010).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서들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동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 한편, 텍스트 분석에서는 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다(박자현·송민, 2013).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신문 사설이나 보도 기사, 판례 등 장문의 글을 대상

으로 토픽 모델링을 시행했기에 LDA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예: 박승정·전진오·김선우·김성태, 2017; 심준식·김형중, 2017; 이태준·이승배·오창동, 2017). LDA는 Dirichlet 분포를 이용해 텍스트 문서 내 단어들에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댓글과 같이 짧은 문장을 분석하는데 부적합하다. 대명사·조사 등 불용어가 제외되면, 하나의 댓글에 남아 있는 단어의 수가 적어져 특정 주제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Yan, Guo & Lan, 2013). 이밖에 로지스틱 정규 분포를 적용해 토픽 사이의 상관관계를 공분산 구조로 반영한 CTM(Correlated Topic Model)의 경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픽 분포의 변동 모수의 분포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기울기 최적화에 의한 적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김현정·장미정·신경식, 2016, p. 169). “STM(Structural Topic Modeling)은 대량의 개별 문서들을 가로질러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복수의 주제들을 베이스 추정방식으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 기법을 이용하면 말뭉치에 속한 모든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분포를 이용해 개별 문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잠재적 주제를 도출할 수 있지만”(이준웅, 김성희, 2018, p. 135), 이 방법 역시 댓글과 같은 분석에 적합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토픽 모델링 분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주제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한 번 이상 재출현하는 경우가 드문 단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BTM(Biterm Topic Model)을 방식을 사용했다. BTM은 단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문에 등장하는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해 주제를 추론하는 biterm 방식을 사용해 전체 코퍼스(corpus)를 대상으로 주제와 단어의 분포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MZ세대’, ‘개인주의’, ‘이기적’, ‘젊은꼰대’라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단어를  $\{w_1, w_2, w_3, w_4\}$ 로 표현하면 ‘ $w_1+w_2$ ’, ‘ $w_1+w_3$ ’, ‘ $w_1+w_4$ ’, ‘ $w_2+w_3$ ’, ‘ $w_2+w_4$ ’, ‘ $w_3+w_4$ ’ 등과 같은 확률 조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댓글 전체를 훑어 본 후에 남아 있는 단어의 수가 적어 분석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준다(송애린·박영호, 2018). 이와 같은 토픽 모델링을 위해 Python의 토픽 모델 처리 패키지 함수를 이용했으며, 토픽별로 20개의 상위 빈도를 차지한 단어들을 추출해 해당 토픽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alpha$  값은  $50/k$  (토픽의 수),  $\eta$  값은 0.01을 적용하고, 사후 분포 추정 방법으로 베이저안 추정법의 일종인 Gibbs sampling을 적용해 토픽의 수를 도출했다. 토픽의 수는 토픽의 해석 가능성과 타당도, 유용성, 전문적 식견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주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토픽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토픽의 명명은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DiMaggio et al., 2013). BTM 역시 LDA와 동일하게 토픽 모델링의 웹 기반 시각화 도구인 LDAvis 패키지를 통해 토픽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이에 본 연구는 해당 패키지를 이용해 여

러 차례 다른 토픽 수를 부여해 보고, 각각의 Inter Distance Map (IDM), 토픽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확인 후 최대한 토픽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며, 경계가 명확한 k수를 최종 토픽 수로 결정했다. 그 후 토픽별로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를 20개씩 도출한 후 해당 토픽에 포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 이름을 명명했다.

## 4. 연구결과

### 1) 댓글 내 주요 키워드 분석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관한 빈도 분석을 시행했다. <Table 1>은 수집된 전체 댓글의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전체 3,547개의 댓글 중 분석에 사용될 상위 200개 단어를 출력했으며, 이 중 상위 40개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댓글에는 ‘꼰대(Kkondae)’, ‘기사문제(Article-problem)’, ‘회사(Company)’, ‘말많은(Talkative)’, ‘회식(Dining-together)’, ‘상사노릇(Boss)’, ‘세대차이(Generation-gap)’, ‘일없는(No-work)’, ‘요즘애들(Kids-there-days)’, ‘나이많은(Old)’, ‘개념없는(Thoughtless)’ 등의 단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세대를 칭하는 명칭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꼰대’와 ‘요즘애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문제 1).

Table 1. The Top 40 Keyword

No.	Keyword	n	%	No.	Keyword	n	%
1	Kkondae	1042	3.04%	21	Individualism	130	0.38%
2	Article-problem	389	1.13%	22	Unable	107	0.31%
3	Company	376	1.10%	23	Uncle	105	0.31%
4	Talkative	299	0.87%	24	Military-culture	104	0.30%
5	Dining-together	264	0.77%	25	Effort	104	0.30%
6	Boss	259	0.76%	26	Ignorance	103	0.30%
7	Generationgap	251	0.73%	27	Not-equal	96	0.28%
8	No-work	248	0.72%	28	Nunchi	78	0.23%
9	Kids-these-days	247	0.72%	29	Nam-Pingye	78	0.23%

1)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BTM/BTM.pdf>

No.	Keyword	n	%	No.	Keyword	n	%
10	Old	241	0.70%	30	Coerce	76	0.22%
11	Thoughtless	219	0.64%	31	Nagging	73	0.21%
12	Problem	182	0.53%	32	Silly	67	0.20%
13	Communication	175	0.51%	33	Thanks-to-Parent	63	0.18%
14	You-too	170	0.50%	34	Incapable	63	0.18%
15	Understading	166	0.48%	35	Young	62	0.18%
16	Unfair	165	0.48%	36	Newcomer	62	0.18%
17	Pressure	163	0.48%	37	Respect	58	0.17%
18	Hell-Joseon	151	0.44%	38	Progress	58	0.17%
19	Dissatisfaction	150	0.44%	39	Weird	58	0.17%
20	Loath	137	0.40%	40	Tiring	58	0.17%

상위 빈도로 나타난 단어 중, ‘꼰대’와 ‘요즘애들’이라는 단어는 세대를 칭하는 단어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칭하는 두 단어에 내포된 이미지와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연구문제 2), ‘꼰대’와 ‘요즘애들’이 어떠한 단어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꼰대’와 관련된 주요 단어들의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 제시했듯이, ‘꼰대’, ‘답없는(No-Dap)’, ‘헬조선(Hell-Joseon)’, ‘일없는’, ‘회사(Company)’, ‘회식(Dining-together)’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F-IDF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꼰대’, ‘노답’ 등이 전체 주관식 답변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이므로 확인되었다. 다른 여러 단어와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중심(hub)이 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연결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노답’, ‘헬조선’, ‘회사’, ‘일없는’, ‘회식’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꼰대’와 ‘노답’이라는 키워드가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는 모든 키워드와 연결되어 가장 큰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원문을 확인했으며, 해당 예시는 다음과 같다.

회식이란게 없었으면 좋겠음 회식이 무슨 꼰대 비유 맞추다 끝나고 전혀 즐겁지가 않고 ㄷ술 별로 안좋아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해준다

언젠가부터 꼰대들 그냥 무시하고 혼밥에 회식 불참했더니 내 삶이 바뀌더라. 개인 사생활 오지랖에 업무는 과거에 이랬으니 이렇게 해라 식으로 지시하면서 뭘 놈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는지 ㅋㅋ 회의하면 무조건 편들어 쥐여되는 자존감 없는 꼰대들 ... 반박하면 몇 달은 빠진다.

헬조선 후진국 만드는 주범들이 여기 있었네...그게 싫으면 관둬? 회식이 연장? 말도 안되는 소리... 해외가서 하면 육쳐먹고 돌려 맞을 소리...지네들이 헬조선 만들면서 알기나 알까? 한심한 마인드의 사람들 많다 문제를 바꾸려고해야지 관두래ㅋㅋㅋ

Table 2. The Top 30 Keyword - Kkondae

No.	Keyword	n	%	Keyword	TF-IDF	Keyword	Degree Centrality
1	Kkondae	668	3.17%	Kkondae	1023.64	Kkondae	0.07
2	No-Dap	366	1.74%	No-Dap	713.55	No-Dap	0.05
3	Hell-Joseon	296	1.41%	Hell-Joseon	646.48	Hell-Joseon	0.04
4	No-work	258	1.23%	No-work	618.19	Company	0.03
5	Company	236	1.12%	Company	567.86	No-work	0.03
6	Dining-together	182	0.86%	Dining-together	504.03	Article-problem	0.03
7	Article-problem	170	0.81%	Old	463.16	Dining-together	0.02
8	Old	169	0.80%	Article-problem	459.98	Boss	0.02
9	Boss	164	0.78%	Boss	455.38	Old	0.02
10	Talkative	142	0.67%	Pressure	403.95	Talkative	0.02
11	Pressure	138	0.66%	Talkative	402.90	Pressure	0.02
12	Military-culture	105	0.50%	Military-culture	330.34	Good	0.01
13	Good	104	0.49%	Good	323.92	Military-culture	0.01
14	Loath	88	0.42%	Loath	294.41	Loath	0.01
15	Junior	58	0.28%	Junior	215.71	Director	0.01
16	Director	56	0.27%	Director	212.66	Junior	0.01
17	Office	55	0.26%	Office	208.87	Office	0.01
18	Nonsense	47	0.22%	Nonsense	186.86	Time	0.01
19	Time	46	0.22%	Uncle	184.76	Myself	0.01
20	Uncle	45	0.21%	Time	184.02	Elder	0.01
21	Senior	44	0.21%	Myself	175.37	Nonsense	0.01
22	Myself	43	0.20%	Ka-talk	174.23	Senior	0.01
23	Elder	43	0.20%	Senior	173.87	Hierarchy	0.01
24	Ka-talk	43	0.20%	Elder	170.96	Act	0.01
25	Off-work	39	0.19%	Newcomer	158.66	Reason	0.01
26	Newcomer	37	0.18%	Off-work	158.02	Newcomer	0.01
27	Hierarchy	37	0.18%	Hierarchy	154.03	Off-work	0.01
28	No-ability	36	0.17%	No-ability	153.19	Embarrassed	0.01
29	Embarrassed	36	0.17%	Understanding	152.00	Nagging	0.01
30	Understanding	36	0.17%	Embarrassed	149.87	Effort	0.01



다음으로, ‘요즘애들’과 연결된 주요 단어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해당 단어에 내포된 이미지와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했다. <Table 3>에 제시했듯이, ‘요즘애들’, ‘답없느’, ‘개념없느’, ‘나중에너희도’, ‘꼰대소리’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F-IDF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즘애들’, ‘노답’, ‘개념없느’ 등이 전체 주관식 답변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이므로 확인되었다. 다른 여러 단어와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중심(hub)이 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연결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요즘애들’, ‘나중에너희도(You-too)’, ‘답없느’ 등이므로 확인되었다. 특히, ‘요즘애들’과 ‘나중에너희도’라는 키워드가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는 모든 키워드와 연결되어 가장 큰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원문을 확인했으며, 해당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금의 꼰대도 신입 시절에 그 윗선의 꼰대한테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당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다. 지금의 신입들도 나중에 꼰대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위에서 고치지 않는다 뭐라 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꼰대 됐을때 고쳐봐라. 쉽지는 않겠지만... 왕년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시어미되면 더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이다.

당신은 과연 나중에 꼰대짓 않을 자신 있는지...??

자기가 나중에 저자리에 앉으면 앵그럴거 같지? 나중에 봐봐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을 걸 커저 나이에 일찍 집에 들어가도 마누라도 자식도 쳐다도 안바 그러니 집에 일찍 가고 싶겠어. 당신들에 미래야. 그러니 너무 욕하지 말자고.

꼰대라고 비판하지만 나중에 결국 너희들도 아래 세대에게 꼰대 소리 들을게다....

Table 3. The Top 30 Keyword – MZ generation

No.	Keyword	n	%	Keyword	TF-IDF	Keyword	Degree Centrality
1	Kids-these-days	438	6.69%	Kids-these-days	384.49	Kids-these-days	0.14
2	No-Dap	67	1.02%	No-Dap	168.09	You-too	0.02
3	Thoughtless	63	0.96%	Thoughtless	162.82	No-Dap	0.02
4	You-too	53	0.81%	You-too	148.54	Thoughtless	0.02
5	Kkondae	53	0.81%	Kkondae	144.80	Kkondae	0.02
6	Reckless	50	0.76%	Pretext	137.06	Reckless	0.02
7	Pretext	44	0.67%	Reckless	136.60	Rude	0.02
8	Article-problem	42	0.64%	Article-problem	122.02	Pretext	0.02
9	Loath	41	0.63%	Loath	118.02	Not-equal	0.02
10	Not-equal	40	0.61%	Rude	117.77	Article-problem	0.02
11	Rude	39	0.60%	Generation-gap	116.51	Loath	0.02
12	Generation-gap	37	0.57%	Not-equal	115.14	Generation-gap	0.02
13	Good-time	30	0.46%	Good-time	96.61	Good-time	0.01
14	Newcomer	23	0.35%	Claim-right	90.60	Nunchi	0.01
15	Claim-right	22	0.34%	Newcomer	84.71	Claim-right	0.01
16	Upset	21	0.32%	Upset	75.01	Newcomer	0.01
17	90s	20	0.31%	90s	72.52	Upset	0.01
18	Experience	19	0.29%	Nunchi	72.35	Understanding	0.01
19	Culture	19	0.29%	Culture	68.89	Experience	0.01
20	Nunchi	19	0.29%	Experience	67.86	Culture	0.01
21	Advice	18	0.27%	Advice	67.38	Advice	0.01
22	Understanding	17	0.26%	Individualism	67.17	Parents	0.01
23	Care	17	0.26%	Understanding	65.91	Individualism	0.01
24	80s	17	0.26%	80s	65.91	Young	0.01
25	Individualism	17	0.26%	Care	65.91	Generations	0.01
26	Parents	16	0.24%	Senior	62.03	Care	0.01
27	Senior	16	0.24%	Young	61.77	Senior	0.01
28	Bollocks	16	0.24%	Parents	60.93	Ability	0.01
29	Ability	15	0.23%	Bollocks	60.93	90s	0.01
30	Respect	15	0.23%	Ability	60.47	Mess	0.01

## 2) 댓글 내용 토픽 분석

연구문제 3인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다룬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주제를 분류해보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다. 최초 토픽 수는 10개로 지정했지만, 토픽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라 토픽 개수를 조절하며 최종 토픽 수를 확정했다. 토픽 수를 선정하는 과정은 연구 방법론에 자세히 기술했다. 결과적으로,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Table 4>는 댓글들의 토픽 분석결

과를 나타낸다. 토픽별 상위 키워드를 토대로 1)MZ세대에 대한 의견(Opinion on the MZ generation), 2)기성세대에 대한 의견(Opinion on the older generation), 3)언론이 세대 갈등을 조장(It's the media that promotes generation conflict), 4)꼰대문화=한국문화(Kkondae culture=Korean culture), 5)세대 갈등은 일부의 문제(Some people's problems) 등으로 구분했다.

Table 4. Topic Modelling

No.	Topic	Keywords	%
1	Opinion on the MZ generation	MZ, Kids-these-days, You-too, Thoughtless, Pretext, Mindset, Weird, Talkative, Complain, Dissatisfaction, Hard, Tough	25.9%
2	Opinion on the older generation	Kkondae, Dining-together, No-weekend, No-work, Old, Nagging, Pressure, Elder, Job, Direction, Effort, Adult, Treatment	20.2%
3	It is the media that promotes generational conflict	Article-problem, Split, Generation-gap, Promote, Blunder, Weird, Instigation, Reverse, Irritable, Mess, Media, Problem, , Expression, Unqualified-jourlist	17.2%
4	Kkondae culture = Korean culture	Pressure, Military-culture, Confucianism, Abu, No-dap, Kkondae-culture, Korea, Mess, Courtesy, Old-times, Joseon-dynasty	19%
5	Some people's problems	Partial, Individual-difference, Kkondae, Difference, Nunchi, Young, Treatment, Position, Reality, No-equal	17.6%

최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4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우선, 첫 번째 토픽은 「MZ세대에 대한 의견」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요즘애들’, ‘너희도나중에’, ‘개념없는’, ‘남핑계’ 등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토픽에 자주 출현한 단어들과 댓글 원자료를 함께 살펴본 결과, 현실에 불평만 하려는 청년세대라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이들도 곧 이들이 현재 불만을 품고 있는 꼰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요즘애들 건설적인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쓸데 없는 불평, 투정, 불만.. 다섯살 어린애 처럼 억지 부리며 떼쓰고 분노발작하는게 유행인듯. 생각하는 수준부터 겁나 떨떨하고 모자르고 겁나 유치함. 꼭 무슨 전염병 같음. 열등종자들 특징만 완벽히 모아서 담아 놓은 거 같은 느낌.

90년대생도 늙으면 꼰대된다.

90년대생도 나중에 꼰대는 된다 ㅋㅋㅋ 왜냐면 80년대생도 신입때는 그 윗세대한테 요즘애들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ㅋㅋ 혹은 개념없다 ㅋㅋ 라떼는말이야 소리 들어가면서 나는 나중에 꼰대 되지말아야지.... 하고 버텼는데 ㅋㅋ 결국 꼰대는 되더라고 ㅋㅋ 90년대생도 다를바없고 00년생도 10년생도 결국에는 나이먹으면 꼰대 됬ㅋㅋㅋ

우리 회사 90년대생! 회사 1년만 다니고 잘려서 해직수당이랑 실업급여 받아서 여행 다니고 싶어함! 어제 퇴근 후 친구와 들른 맛집 사진 인스타랑 블로그에 올리기! 퇴근 시간은 6시인데 5시 55분에 PC끔! 이력서 받아보면 3개월짜리 4개월짜리 근무 경력 2개 기본! 본인 실력은 없으면서 늘 불평 불만! 그만 둘 때 인수인계 같은거 없이 엄마가 전화해서 저희에 내일부터 못 나간다고 회사로 전화 옴!

다 필요없고 요즘애들은 쫌나게 굴리는게 답이야. 첫번째로 의지가 약해. 옛날에는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걸 가지고 요즘것들은 이래서 힘드네 저래서 못하겠네 ㅁㅁㅁ 그거 쫌나게 굴려대면 다할수있는거다. 하여간 사람대접을 해주니 불평만늘지ㅁㅁㅁ 두번째로 뭐 우리때도 근무시간에 몰래 주식 보거나 그러긴하지만 정말 몰래 잠깐 보는건데 요즘것들은 뭘 대놓고 스마트폰질에 유튜브에 쇼핑몰에 만화에 ㅁㅁㅁ 차라리 주식 부동산처럼 자기 돈벌거 잠깐 보는거면 몰라 대놓고 쓰잘데기없는 그런거나 쳐보고있고 지적하면 주둥아리 대빨나옴 ㅁㅁㅁ

두 번째 토픽은 「기성세대에 대한 의견」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꼰대’, ‘회식’, ‘주말없음’, ‘나이많은’, ‘생각없는’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토픽에는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이 모임만 강조하는 상사와 큰 고생 없이 모든 걸 누린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학다닐때 데모에 술만 처먹다가 IMF로 윗세대 밀어버리고 그자리 차지해서 노조 설립하고 철밥통 만들어 아랫세대에게는 양보안하고 꼰대질하는 최악의 60년대 중반 ~ 70년대 중반 세대 아닌가?

기성세대는 경쟁도 노력도 안하고 회사들어와서 투덜대기만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머리만 굽적이다가 후배들한테 일다 떠넘기고 잘하는 것은 뒷담화 끼는 낙으로 회사 출퇴근

기회 있을 때 자리 꿰차고 자기들 배불리기 바쁘고 그래놓고 애국타령에 2~3대한테 양보할 줄 모르는 386 인간 말종들 모조리 참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아 치먹은 족속들이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는 허구한 날 노력 부족 같은 개소리나 지껄이는 쓰레기 세대

일은 안하고 대충 시간 때우다 퇴근할 때쯤 느닷없이 회식 하자고 해서 자기 비유 맞추라 하는 일을 안 한 시간 때우다 퇴근하는 전국에 상사들 찢러야 됨

회식이나 술자리 번개, 주말mt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친목도모라는 미명하에 젊은 직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안 그래도 자기 시간 없는 직장인인데 소중한 퇴근 후 저녁시간, 주말마저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상사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술자리는 누구나 가기 싫어한다. 부하 직원들이 자기와의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사니까 그냥 웃어주고 분위기 맞춰주는 거다. 그걸 자기와의 술자리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게 바로 꼰대다. 제발 쓸데없는 술자리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토픽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건 언론」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기사문제', '분열', '세대차이', '조장'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글들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세대 갈등을 기사화하는 언론에게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꼰대라는 표현은 세대간 벽을 조장하는 단어이며 모멸감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이런 세대간 공격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꼰대가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사람을 칭하는 거라면 꼰대라는 말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꼰대 된다. 어른이나 선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배려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나이를 먹고 입장이 바뀌면 꼰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꼰대라는 말 쓰지마라. 이런 황당한 기사로 문화라는 말 까지 붙이니 황당할 뿐이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이런 기사가 더 혐오스럽다.

꼰대라는 말은 상당히 이기적인 거라고 본다. 50대에서는 20.30대를 한심한 것들로 보겠지. 요

즘 꼰대라는 말은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는 사람인데 멘토는 필요하다 이걸 먼 개 소리인지 ㅋㅋ 언론이 문제라고 본다. 꼰대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야지 예능에서도 보면 옛날방식이나 잔소리한다 싶으면 꼰대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못된 사고 생기는 거라 본다. 지금의 20.30대도 10년후 똑같이 당할거라 본다. 꼰대라는 말은 옛날방식을 고집하고 강요할 때 쓰는 거다. 잘못을 지적하거나 옛날 걸 쓴다고 해서 꼰대가 아니다.

분열 조장하는 언론 이런 기사 쓰는 기자가 꼰대들보다 더 큰 문제 아닐까.

뭔 기사를 세대를 나누기로 쓰냐. 그냥 회사마다 부서마다 팀워크 좋으면 좋은 일 슬픈 일 회식해도 긍정적인데 팀워크 개판이면 공짜 밥도 먹기 싫은 거지. 꼰대니 젊은 세대니 나눠봐야 의미 없음.

네 번째 토픽은 「꼰대문화=한국문화」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강요문화’, ‘군대문화’, ‘유교’ 등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글들은 읽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문화는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닌 원래부터 존재해온 한국적인 문화라는 의견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요즘 것들은 버릇없다’는 대대로 내려온 건데..지금 젊은 세대도 나중에 별 수 없지 않겠어?

그냥 나도 꼰대고 너도 꼰대고 우리 모두가 꼰대다. 꼰대민국이다 완전.

꼰대문화 = 군대문화. . .군대문화를 사회에서 없애야 한다. . .군사독재의 잔재이기고도 하다.

높임말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한국어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유교문화, 군대문화 없어지지 않는 한 답없다.

식민지시대 일본식 전체주의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아 강자의 갑질이 당연시되고 약자가 소신을 가지면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세상. 꼰대문화는 여기서 생겨난 거다. 그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른 채. 나도 다 그렇게 살았다며. 젊은것들은 철이 없다며. 가치관까지 강요당하는 사회. 왜 이렇게 한국의 삶은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구문화

가 차라리 부럽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꼰대한테 시달리다 때려치우고 사업하니, 거래처가 갑질하고, 결혼하니 장인어른한테까지 꼰대 살이한다. 지긋지긋한 한국문화.

마지막 다섯 번째 토픽은 「세대 갈등은 일부의 문제」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일부’, ‘개인차이’, ‘젊은꼰대’, ‘같지않음’ 등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댓글들은 세대 갈등은 모든 MZ세대와 기성세대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부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일부 청년들이 모든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죠. 오만함으로 기성세대를 꼰대로 매도하고 세대이기주의에 물든 자들이 독립선언 33인과 같은 대표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대망상인 것 같네요. 지각 있는 청년들이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 기성세대의 행동을 갖고 꼰대라는 비어로 세대갈등 부추기는 찌라시 한국일보와 기레기를 추방합시다.

물론 일부 지각없는 상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열심히들 직장생활 한다. 그리고 쌓옥수준의 말과 불평불만 많은자는 상사가 되면 더했음 더했지 절대 원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꼰대 짓하는 상사 극히 일부입니다. 또한 윗사람들에게 쌓옥 해대는 사람도 정말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나 일부 존재하는 병폐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시켜 자 극적인 말로 선동하려고 하지 말고 배운 사람이라면 서서히라도 고쳐나가려는 현명함으로 대처 했으면 한다. 불합리한 관습이 내 세대에 모두 고쳐지겠는가? 내가 조금 그 다음 세대가 조금 고쳐나가도록 바른 방향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형성하도록 분위기 만드는 게 지성이라 생각한다.

밤 열시에 카톡하는 팀장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된다고...이런기사 쓰냐? 내 생각에는 별로 없을 듯...있어도...바쁘거나 급할 때지.... 윗사람도 가족과 편하게 보내길 원하지...누가...카톡까지 하며...시간 낭비하겠는가? 회사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거나. ...특수한 직업군이겠징!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세대가 빚고 있는 갈등을 대하는 온라인 여론의 시각이 어떠한지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갈등의 주체는 2021년 현재,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청년과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에 해당하는 중년이다.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성장한 두 세대가 현재 부딪히고 있으며, 이들의 상이한 가치관은 조직 내 불통 및 괴롭힘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길성, 2011; 원영희·한정란, 2019; 정해식 외, 2018). 뉴스 기사에선 요즘의 청년세대를 MZ세대라 칭하며, 개인화와 수평적 조직문화를 선호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젊은이들로 묘사한다. 반면, 386세대라 불리며 불합리한 사회에 맞선 추진력 있는 청년들로 인식되던 기성세대는 끈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세대 갈등을 두고 뉴스 이용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과 댓글 원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댓글 안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댓글은 총 5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토픽에서 문헌 자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대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정적 시각이 나타났다. 우선, 첫 번째 토픽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를 향한 의견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토픽에 해당하는 댓글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 하는 이기적인 세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투정만 부리는 세대'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 것'이며, '이들도 시간이 지나 새롭게 등장할 젊은이들로부터 끈대로 불리며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댓글이 달렸던 기사의 주제 및 논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댓글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MZ세대의 모습'을 다루거나, '윗세대와 달리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살아야 하는 MZ세대의 현실'을 다룬 기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댓글에 드러난 '세대 갈등을 일으킨 원인은 청년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의견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이재경, 2018; 정해식 외, 2018).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불공정/불합리함은 세대 충돌을 일으킨 이유이지만, 오히려 개개인이 느끼는 현실적 측면의 세대 갈등은 외부 환경적 여건보다 개인 내적인 특성 탓으로 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세대 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 관한 편견이 무엇인지



연령주의적(ageism)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시각을 가진 공중의 주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MZ세대를 긍정적 혹은 측근한 시각에서 접근한 기사와 달리, 이들의 평소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온라인 여론이 우세했던 까닭은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댓글 작성자의 나이와 신분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결과 해석에 제한이 따르지만,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중 주목할 점은 ‘언론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세 번째 토픽이다. 물론, 전체 댓글 가운데는 ‘기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무언지 알았다’, ‘공감 가는 기사다’ 등 수용적인 측면의 반응도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토픽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댓글은 “(제가)90년대생인데요.”, “난 30대 초반인데”, “난 50대 후반이지만” 등 본인의 나이를 밝히며,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본인은 평소 회사에서 세대 갈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거나, MZ세대 혹은 기성세대에 관한 특징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오히려 관련 댓글들은 ‘일부 세대의 행동을 갖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는 자체가 세대 갈등을 점화할 수 있다’는 등과 같이 우려와 비난을 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뉴스 이용자는 본인이 속한 세대 특성을 특정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기사를 읽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위와 같은 댓글 반응은, “어떤 문제를 세대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특정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세대 집단 내부의 동질성에 집착하는 것은 실제와 다른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김선기(2014)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세대 공감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일부 뉴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을 토대로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디어의 영향력을 단정할 순 없다. 더욱이 본 연구는 미디어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세대 갈등의 원인이 미디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댓글 분석결과와 특정 담론을 생성·강화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Fairclough, 1995), 세대 갈등의 중심에 미디어도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대 갈등에 관한 온라인 댓글 여론의 내용을 파악하는 탐색적 차원에 그쳤지만,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해 앞으로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꼰대’라는 명칭이 반드시 기성세대만을 칭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근거는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토픽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네 번째 토픽에 등장한

‘꼰대’라는 명칭은 두 번째 토픽에서 발견된 ‘꼰대’와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네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글들은 ‘요즘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겪는 갈등은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니며, 시대가 변하더라도 항상 존재해왔던 일’이며, ‘꼰대 문제도 현재의 기성세대인 386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첫 번째 토픽에서 확인한 ‘청년세대도 곧 기성세대가 된다’와 유사한 부분이자, “개인 은 시간의 흐르면서 다양한 연령을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특정 연령층에 보이는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박재홍(2009, p. 1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토픽에 포함된 댓글 가운데는 많진 않았지만 ‘꼰대’라는 단어에 담긴 권위주의적 사고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되어 있었다. 댓글 원문 중 일부를 예를 들면,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위계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함”,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자유분방함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젊은 사람은 동시에 기성세대의 질서를 이해해야 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첫 번째 토픽 내용을 논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은 특정 명칭으로 불리는 코호트 세대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다섯 번째 토픽은 세대 갈등을 겪거나 발생시키는 주체는 일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기성세대라고 모두 다 꼰대는 아니며’, ‘MZ세대 중에도 젊은 꼰대가 있다’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토픽에서 기성세대를 비난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던 ‘꼰대’ 명칭이 네 번째 토픽에서는 일부 청년세대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MZ세대로 분리되는 20·30세대들이 직접 댓글에 자신의 연령대를 직접 언급하면서, MZ세대에도 꼰대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댓글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짐작해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는 명칭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이고 ‘동료애가 없는’, ‘내 일만 끝내고 가면 되는 식의 생각하는’ 개인을 일컫는 용어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현실적으로 겪는 조직 내 세대 차이와 불통의 문제는 뉴스 미디어에서 지적하는 것과 달리, 기성세대가 가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혹은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차이와 같이 세대 간 차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뉴스 미디어에서 지적하는 특정 세대의 모습과 세대 간 갈등은 현실에선 일부 개인의 문제 혹은 살아온 햇수와 관련된 연령(age)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세대 간 갈등이 가치관 차이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정순돌 외, 2016), 시대가 흐름에도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아닌 이들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은 나이 차이로 인해 느끼는 불편감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씩 특정 연령을 거쳐 가며, 노화에 따라 인지적·신체적 변화는 물론 성격과 성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Neugarten, 2018). 한편, 지금까지 연령과 관련한 갈등을 다룬 연구들은 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주로 생애 마지막 주기인 노인층과 비노인층의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해왔다(정순돌 외, 2016). 미디어 연구 역시 노인의 이미지 재현 방식과 그 영향력을 밝히는 데 치중되어 있었으며, 세대 공감과 통합을 위해선 미디어 속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개발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연령 스펙트럼을 기존 노인에서 청년 및 중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문제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와 같은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경험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제안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관련 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뉴스 미디어는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고, 특정 주제를 이슈화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예: 방정배·최세경, 2003; 방희경·유수미, 2015; 신진욱·조은혜, 2020). 기사에서 호명하는 특정 세대의 명칭과 특징은 수용자에게 이들을 이해하는 준거로 작용하여, 나와 다른 세대를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세대의 지나친 일반화는 해당 집단에 속한 이들을 대하는 고정 관념화된 이미지와 태도를 고착화하여 도리어 세대 갈등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뉴스 미디어에서 호명하는 MZ세대는 결국 20·30 젊은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로 칭한다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회·정치·경제적 이슈와 무관한 부분이기도 하다. 뉴스 미디어에서 까지 청년세대를 굳이 MZ세대로 부르며, 이들이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인지 정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 댓글의 역할과 영향력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보면, 댓글들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댓글 기능이 생김으로 인해 독자들이 뉴스 기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항할 수 있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온라인 뉴스를 읽으면서 댓글도 함께 읽는다는 요즘의 뉴스 소비 행동(한국언론진흥재단, 2018)과 댓글 읽기의 영향력(김혜미·이준웅, 2011; 이은주·장윤재, 2009)을 고려하면,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는 역할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독자가 직접 작

성한 댓글은 뉴스와 달리 사회문화적 체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 담론에 맞서 새로운 담론을 제안하는 이용자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은진·강주현, 2019). 뉴스 댓글이 갖는 부정적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앞으로 미디어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론으로서 댓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탐구 및 또 다른 언론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기 때문에, 댓글 내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세대 갈등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뉴스를 읽고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은 대체로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문정, 2018; 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하지만 앞서 문헌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댓글과 유사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염정운·김류원·정세훈, 2020; 임혜반·이병관,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수의 댓글이 다수의 의견으로 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갈등을 다룬 기사를 읽은 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온라인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뉴스에 달린 댓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의 내용적 특성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따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의 내용 및 보도방식과 댓글 내용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별 정치성향을 고려했을 때 댓글 작성자의 성향 및 그에 따른 댓글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세밀히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글에 내포된 의미를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텍스트 분석을 시행한 양적 연구로서 기존의 담론분석 혹은 내용분석 연구와 달리, 댓글에 출현한 상위 단어를 기반으로 결과를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가 문장 길이가 짧고 구어체 중심의 댓글이기 때문에, 욕설이나 맞춤법의 오류, 이모티콘의 사용 등이 많아 단어 정제 과정에 있어 삭제되는 단어들이 많았을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로 인해 각 댓글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 점은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의 한계점이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단지 현상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댓글 원문을 분석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해석의 깊이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MZ세대와의 갈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대 담론의 변화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MZ세대”가 언급되는 기사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보니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댓글의 양 자체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상외로 댓글들이 하나의 기사에 치우쳐 작성되

는 경우가 많아 댓글 수집의 대상이 된 기사가 19개밖에 불과했다. 한정된 기간 및 제한된 기사 수 등 임의적인 방법으로 뉴스 기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세대 담론이라고 보기에는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이며,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진행된 탐색적 연구였기에, 세대 갈등 담론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보기 못했다. 온라인상에서 세대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세대 연대를 위한 온라인 뉴스 및 미디어 공론장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MZ세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세대를 칭한 다양한 명칭을 중심으로 온라인 댓글을 장기간 수집해보고, 세대를 칭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이 오고 가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세대 통합을 논의하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비록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기존의 인식조사 방법이나 내용분석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인터넷 공간 속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된 네티즌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의 시도는 특정 이슈에 관한 지배적인 여론의 동향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조사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댓글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은 자료 수집이 쉬울뿐더러, 원자료 그대로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이 아닌 뉴스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원문 그대로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댓글과 같은 소셜 데이터 분석과 설문 조사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조사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깊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 An, S., & Kang, H. (2018). Effects of the vicarious contact of older adults through social media on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elderly stigma.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1(3), 7-29.
- An, S., & Kang, H. (2019). Suicide stigma in online social interactions: impacts of social capital and suicide literacy. *Health communication*, 34(11), 1340-1349.
- An, S., Lee, S., & Chung, S. (2017). How indirect contacts of older adults through media influence ageism: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nd social norm.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7(3), 763-781.
- An, S., Lim, Y., & Lee, H. (2020). A study of viewers' comments on online mukbang videos a big-data analysis of perceptions toward ea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2), 269-310.
- Bang, J., & Choe, S. (2003). A study on the structure to produce the discourse of social conflict in the press of Korea : Focus on the discourse of ideological, regional & generational conflict in the newspaper tex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3(2), 219-270.
- Choi, D., Choi, S., & Choi, Y. (2008). How do comments affect forming public opinion in internet portal new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8, 311-358.
- Choi, Y., Oh, Y., & Moon, Y. (2015).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older generations : Focusing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elderlys contribution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228-241.
- DiMaggio, P., Nag, M., & Blei, D. (2013). Exploiting affinities between topic modeling and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on culture: Application to newspaper coverage of US government arts funding. *Poetics*, 41(6), 570-606.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First).
- Hoshino-Browne, E., Zanna, A. S., Spencer, S. J., Zanna, M. P., Kitayama, S., & Lackenbauer, S. (2005). On the cultural guises of cognitive dissonance: The case of Easterners and Wester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294.
- Hwang, M. (2019). Reducing ageism in adolescents by using mediated intergroup contac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51(3), 151-183.

- Jeong, H., Kim, M., Yeo, Y., Kim, M., Wu, S., & SA, K. (2016). A study of social cohesion: Koreans' perceived social cohesion.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79.
- Jeong, I., & Kim, Y. (2006). Impact of "Datgeul" of online media on public opinion : An examination of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third person effec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4), 302-327.
- Joo, Y. (2021). Analysis and suggestion of MZ generation, the leading role in the post-corona era . 2021 *KISA REPORT volume 01*.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97](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97)
- Jung, S., Jeong, J., & Kim, M. (2016). The influence of ageism and age integration on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4), 5-24.
- Kang, B. (2019). Sprachliche Gewalt und Tropen - Zur Offensivität der figurativen Personengruppenbezeichnungen in der Hassrede. *DOKILOMUNHAK*, 85, 155-180.
- Kang, J., & Kim, S.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comments posted under internet news articles :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nvolvement in issues and whether or not opinions are in accord.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2), 143-166.
- Kim, E., & Kang, J. (2019). Grounded theory analysis of portal news and comment discourse on abor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6(2), 188-242.
- Kim, H., & Rhee, J. (2011). The impacts of frame fusion of news text and comments on news interpretation and attitud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2), 32-55.
- Kim, M., Lee, S., & Chung, S. (2020). Ageism and perceptions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interaction effects of media portrayal of elderly discrimination and media usage tim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6), 1109-1127.
- Kim, S. (2014). Rethinking the generational research : Critical review on generationalistic tendency. *Culture & Society*, 17, 207-248.
- Kim, S. (2016). The cultural politics of discursive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 -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younger generation since 2010. *Media & Society*, 24(1), 5-68.
- Kim, Y. (2017). Media effect on the generational conflict in society. *The Journal of Integrated Humanities*, 9(2), 227-255.

- Koh, M. (2018). Who comments on or shares online news stories? : Application of statistical learning methodolog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5(1), 5-51.
- Korea Press Foundation (2018). 2018 Media Consciousness Survey.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
- Lee, E., & Jang, Y. (2009). Effects of others comments on internet news sites on perceptions of reality : Perceived public opinion, presumed media influence, and self-opin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4), 50-71.
- Lee, G. (2004). A study on the strategi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intergenerational programs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among generation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6, 143-164.
- Lee, J. (2018). Aspect and cause of generational conflicts, and a exploring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Mainly on the rent-seeking society in Korea. *Economy and Society*, 18-48.
- Lee, J., & Han, G. (2017). The influence of negative stereotype towards the elderly and aging anxiety on Koreans attitudes about sharing space and time with the elderl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act and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2), 1-30.
- Lee, M. (2010). The false consensus effect of internet replies when varying the issue position, message quantity, and prior attitude.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3), 47-87.
- Lee, S., Choi, I., & Kim, I. (2010). Generation conflicts experienced by old men and women and measures for generation cohesion in Korea.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14, 1-382.
- Lee, Y., Kim, S., & Do, Y. (2020). Public attitudes towards Fenbendazole use in cancer patients: A thematic analysis of online news comm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321-351.
- Namkung, E. (2021).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conflicts and public policies: Age and class differenc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93(0), 54-69.
- Neugarten, B. L. (2018). Personality and the aging process. In *Process of aging* (pp. 321-334). Routledge.
- North, M. S., & Fiske, S. 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82.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 Ortiz, M., & Harwood, J. (2007). A social cognitive theory approach to the effects of mediated intergroup contact on intergroup attitud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1(4), 615-631.



- Pang, H., & Yoo, S. (2015). Korean newspapers and discourses on the young generation (from silk generation to sampo generation) : Walking a tightrope between crisis theory and the theory of hop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2), 37-61.
- Park, G. (2011). Rethinking generational conflict in contemporary Korea: The search for economic dimensions. *Korean Society*, 12(1), 3-25.
- Park, J. (2009). Discourse on the generational labels and 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 *Economy and Society*, 8(1), 10-34.
- Park, J. (2010). 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 : Power, ideological and cultural confli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3), 75-99.
- Park, J., & Song, M.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32.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Rim, H., & Lee, B. (2019). The roles of the first reply: Predecisional information distortion of online repli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0(1), 7-27.
- Shin, J., & Ock, C. (2012). A korean morphological analyzer using a pre-analyzed partial word-phrase dictionary. *Journal of KISS : Software and Applications* 39(5), 415-424.
- Shin, J. (2020). Political genealogy and semantics of the discourses 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change of the '386' discourses, 1990-2019. *Economy and Society*, 126, 407-442.
- Shin, J., & Cho, E. (2020). Realities of generational cleavages, representations of generational discourse - A qualitative discourse historical analysis of the genealogy of discourses 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ies. *Civil Society & NGO*, 18(1), 49-99.
- Shin, K., & Choi, Y (2020). Ageism in society : An analysis of the comments posted on major internet portal sites concerning news about elderly peopl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1(6), 93-128.
- Song, A., & Park, Y. (2018). WV-BTM: A technique on improving accuracy of topic model for short texts in SN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9(1), 51-5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ur, teoksessa E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vol 2.

Greenwich, CT.

- Weng, J., Lim, E. P., Jiang, J., & He, Q. (2010, February). Twitterrank: Finding topic-sensitive influential twitterer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pp. 261-270).
- Won, Y., & Han, J. (2019). Study on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tegration: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gerontolog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5, 63-85.
- Yan, X., Guo, J., Lan, Y., & Cheng, X. (2013, May). A biterm topic model for short texts. In Proceedings of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pp. 1445-1456).
- Yang, H. (2008). The effects of the opinion and quality of user postings on internet news readers' attitude toward the new issu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2), 254-281.
- Yum, J., Kim, R., & Jeong, S. (202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user com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7(2), 5-49.

최초 투고일 2021년 06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1월 14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2월 05일

## 부록

- 강병창 (2019). 언어폭력과 비유·혐오발언 속 비유적 집단명칭의 공격성에 대하여. <독일어문학>, 85권, 155-180.
- 강재원·김선자 (2012). 인터넷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효과 연구: 이슈의 관여도와 의견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해서.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143-166.
- 김미리·이선화·정순돌 (2020). 연령주의가 세대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40권, 1109-1127.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권, 207-248.
- 김선기 (2016). '청년세대'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 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김영임 (2017). 미디어와 세대갈등-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통합인문학 연구>, 9권 2호, 227-255.
- 김혜미·이준웅 (2011). 인터넷 뉴스와 댓글의 뉴스 프레임 융합 효과 연구: 해석의 복잡성 및 태도의 극단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32-55.
- 남궁은하 (2021).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1 통권 293호, 55-69.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권 1호, 3-25.
- 박자현·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권 1호, 7-32.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권 3호, 75-99.
- 방정배·최세경 (2003). 한국언론의 사회적 갈등담론 생산구조에 관한 연구: 신문 텍스트의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권 2호, 219-270.
- 방희경·유수미 (2015).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 (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위기론'과 '희망론'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37-61.
- 송애린·박영호 (2018). WV-BTM: SNS 단문의 주제 분석을 위한 토픽 모델 정확도 개선 기법.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9권 1호, 51-58.
- 신경아·최윤형 (2020). 혐로(嫌老) 사회: 뉴스 댓글에 나타 난 노인인식과 공공 PR 의 과제. <광고

- 학연구), 31권 6호, 93-128.
- 신진옥 (2020). 세대불평등 담론의 정치적 계보와 의미론: '386'담론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1990~ 2019 년. <경제와사회>, 126호, 407-442.
- 신진옥·조은혜 (2020).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49-99.
- 신준철·옥철영 (2012). 기분석 부분 어절 사건을 활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9권 5호, 415-424.
- 안순태·강한나 (2018).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에 대한 간접 접촉이 노인 차별에 미치는 영향. <광고 PR 실학연구>, 11권 3호, 7-29.
- 안순태·이선영·정순돌 (2017). 매체를 통한 노인접촉경험이 연령주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권 3호, 763-781.
- 안순태·임유진·이하나 (2020). 온라인 먹방 (먹는 방송, Mukbang) 의 댓글 연구: 식행동 관련 인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한국언론학보>, 64권 2호, 269-310.
- 양혜승 (2008).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견해와 품질이 독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254-281.
- 원영희·한정란 (2019).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고찰. <노년교육연구>, 5권 1호, 63-85.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권, 143-164.
- 이미나 (2010). 댓글의 논조, 숫자, 사진 태도가 이슈의 합의추정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3호, 47-87.
- 이수연·최인희·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107&idx=114954>
- 이은주·장윤재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50-71.
- 이윤주·김설아·도영경 (2020). 암환자의 개구충제 복용에 관한 대중의 태도: 온라인 뉴스 댓글 테마 분석. <보건사회연구>, 40권 2호, 321-351.
- 이지연·한경혜 (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권 2호, 1-30.

- 정순돌·정주희·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권 4호, 5-24.
- 정일권·김영성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론동향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302-328.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성근·류연규·우선희·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V)-사회갈등과 사회통합.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9510>
- 주용완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MZ세대 분석 및 제언. 2021 KISA REPORT volume 01.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97](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97)
- 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의 여론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8권, 311-358.
- 최유석·오유진·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세대갈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5호, 228-241.
- 황미영 (2019). 매개 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연령차별주의 개선 연구. <시민교육연구>, 51권 3호, 151-18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40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

##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세대 갈등에 대한 온라인 댓글 여론의 반응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하나

(이화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세대가 빚고 있는 갈등을 대하는 공중의 시각이 어떠한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갈등의 주체는 2021년 현재,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청년과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에 해당하는 중년이다. 수집된 댓글은 총 5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토픽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를 향한 의견들로,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 하는 이기적인 세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투정만 부리는 세대'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두 번째 토픽은 기성세대를 향한 의견들로,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사',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이 모임만 강조하는 상사' 등과 같은 의견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글들은 '요즘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겪는 갈등은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니며, 시대가 변하더라도 항상 존재해왔던 일'이며, '꼰대 문제도 현재의 기성세대인 386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토픽은 세대 갈등을 겪거나 발생시키는 주체는 일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기성세대라고 모두 다 꼰대는 아니며', 'MZ세대 중에도 젊은 꼰대가 있다'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중 주목할 점은 '언론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다섯 번째 토픽이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세대 공감과 연대를 이루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세대 갈등, 세대 차이, 뉴스 댓글, 온라인 여론, 토픽 모델링